

민 진 전	<h1>BUDDHANARA</h1>
----------------------	---------------------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매일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매일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매일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기도 법회
 매일 넷째주 일요일 11시 108 대참회 기도 법회
 다섯째주 일요일 특별 야외 법회

불국사 콜롬비아 지역 법등 법회
 매달 셋째주 토요일 10시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이달의 법구경: - 산 목숨을 죽이지 않고
 항상 육신을 억제하는 불자는
 불멸의 경지에 이른다.
 거기에 이르면 근심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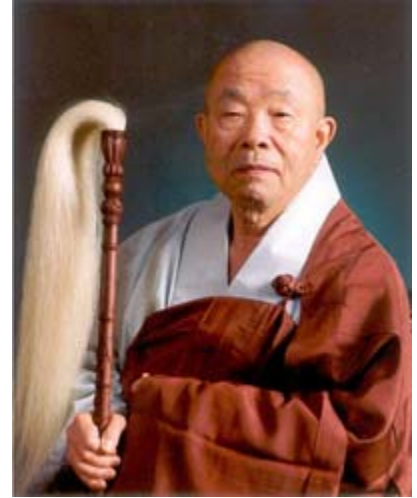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응행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003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8월의 주요 조계종 단 소식

1. 대한불교조계종의 계미년 하안거가 총 91 개 선원(비구 57, 비구니 34)에서 총 2,159 명의 首座가 참가한 가운데 오는 8 월 12 일(음.7.15) 해제법회를 끝으로 회향하게 됩니다.
- 2.安居란 동절기 3 개월(음력 10 월 보름에서 차년도 정월 보름까지)과 하절기 3 개월(음력 4 월 보름에서 7 월 보름까지)씩 전국의 스님들이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참선수행에 몰두하는 것으로, 부처님 당시부터 전해 내려온 수행전통이자, 한국불교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매년 전국 90 여 개 禪房에 2 천 여 首座스님(참선수행에 전념하는 스님)이 房付(안거에 참가하겠다는 신청 절차)를 들어 수행하고 있으며, 지정된 선방 이외에 토굴이나 일반사찰에서도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스님들이 수행자로 돌아가 수행에 매진하게 됩니다.
4. 이번 하안거 기간동안 경북 봉화 각화사 태백선원에서는 30 여 대중이 지난 임오년 동안거 결제부터 시작한 “15 개월 15 시간 가행정진”이 계속되었으며, 지난 동안거 실상사의 금강경 대중논강에 이어 이번에 동화사에서 화엄경 논강결재가 진행되었습니다.
5. 이 외에도 크고작은 선방과 토굴에서 정진한 대중들이 있으며, 전국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이 동안거를 맞아 다양한 형태로 수행에 정진하였습니다. 그 외 조계종 교육원에서 외국인 기초선원으로 지정한 화계사 국제선원, 논산 무상사, 강화도 연등국제선원에서 총 60 여명의 외국인 스님과 신도들이 안거수행을 하였습니다.
6. 또한 이 기간동안 사찰수련법회가 전국 약 55 개 사찰에서 2 만여명이 참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련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조계종 신행정보센터 집계>. 그야말로 한국의 여름-하안거는 수행자를 비롯한 많은 대중들이 함께하는 최대의 수행집중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대한불교 조계종 도림 법전 종정예하 하안거 해제 법어입니다.

마른 것은 마르게 두고 무성한 것은 무성하게 둔다고 할지라도

조계종정 · 해인총림 방장 법전스님

일지영일지고 一枝榮一枝枯하고	한 가지는 무성하고 한 가지는 말랐는데
중심연엽개부소 中心緣葉更扶疎로다	가운데 푸른 잎은 더더욱 우거졌네.
황앵임해천반어 黃 任解千般語하야	피꼬리가 천 가지를 말할줄 알아서
면득방인탄자무 免得傍人彈子無로다	보는 사람이 배를 끄는 줄을 없애지 않게 되었네.

약산유엄藥山惟儼선사께서 천황도오天皇道悟스님과 운암담성雲巖曇晟스님과 함께 만행을 떠났습니다. 같이 산구경을 다녔는데 무성한 나무와 마른 나무를 동시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약산선사는 함께 다니던 두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마른 것이 옳은가? 무성한 것이 옳은가?”

이에 운암스님이 말했습니다.

“무성해야 옳습니다.”

“그렇다면 일체처소에서 광명이 찬란하겠구나.”

그러자 도오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마른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일체처소에서 모두가 말라지게 해야겠구나.”

이를 가만히 듣고 있던 고사미高沙彌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마른 것은 제대로 마르게 두고 무성한 것은 제대로 무성하게 두어야 합니다.”

이에 선사께서 운암스님과 도오스님을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모두 옳지 않다.”

그러던 어느날 약산선사께서 운암스님과 단들이 산 구경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에 약산선사의 허리에서 장두칼 소리가 나니 운암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에 약산선사는 칼을 빼서 갑자기 운암스님에게 달려들어 찌르는 흉내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석두희천石頭希遷 선사 문하의 대선장들로 석두가풍을 유감없이 드러냅니다..

뒷날 어떤 남자가 이 법문을 듣고서 어느 노장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달려들어 찌르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에 그 노장이 대답하였습니다.

“감히 거기에 머리를 내밀 수 없느니라.”

고인들은 움직일 때나 머무를 때나 앉을 때나 누을 때나 도道を 생각했기 때문에 한 마디 했다 하면 곧바로 귀결처를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이런 공부인에게 해제와 결제가 무슨 차이가 있을 것이며, 큰방에 앉아있는 것과 산천을 다니는 것에 무슨 차별이 있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공부처요, 보이는 경계마다 거량처인 것입니다. 요즈음 남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면 모두 턱뼈가 떨어져 아무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고인들이 이렇게 한 것은 그에게 안목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한 철 제대로 정진을 했다면 가는 산천마다 이런 선지식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한 두마디 아는 소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눈 밝은 사람을 눈 앞에서 바로 만나더라도 거량은 고사하고 그 선지식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무성한 나무와 마른나무를 보고서 ‘어떤 것이 옳으냐’고 물으니 한 남자는 ‘무성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인古人은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성한 나무와 마른나무를 보고서 ‘어떤 것이 옳으냐’고 물으니 한 남자는 ‘말라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인은 ‘속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른 것은 제대로 마르게 두고 무성한 것은 제대로 무성하게 두어야 한다’고 한 사미가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인은 ‘아이를 예뻐하다가 추해지는 줄 모르는 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모두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승이 해제대중들에게 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고인의 답변에 과연 옳고 그른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고인의 답변에 과연 옳고 옳는 것이 있습니까?

한 철 동안 정진하여 안목을 갖춘 남자가 있다면 한번 제대로 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만약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다면 해제철도 결제삼아 더욱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낙상황엽작금전 落霜黃葉作金錢하니	서리맞은 단풍잎을 돈아라 하니
치해아제견희환 癡駭兒啼見喜歡로다	어린아기 울음 그치고 기뻐하였네.
착득현양구도호 捉得獻孃俱道好하니	가져다가 엄마에게 보이니 모두가 좋다고 말하나
부지수시신방관 不知誰是哂傍觀고	결의 사람 비웃음 받을 이는 누구이던가?

불기 2547(2003) 하안거 해제일에.

불교의 부모관과 효도관 :모든 부모가 곧 나의 부모

부처님께서 “범망경”을 통하여 선언하시길 “끝없는 예부터 금생에 이르는 동안 6도(六道)중생이 모두 나의 부모형제 아님이 없다”라 하셨다. 또한 “부모은중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름도 성도 알 수 없는 해골 앞에서 이를 전생의 부모라 하시며 오체투지로 예경하시었다.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과 모습은 부모를 내 부모에만 국한시키는 소아적인 좁은 의미에서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3세(三世)를 가로지르고 공간적으로는 하늘과 땅 밑에 이르는 모든 생명에 확장시킨 불교만의 드넓은 부모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이 나와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부모가 곧 나의 부모이다. 이는 부처님께서 깨치신 연기(緣起)의 진리로 꿰뚫어 본 부모와 자식간의 존재론적 실상이다.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 안다면 자기 부모만 공경하고 자기 자식만 챙기는 가족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서 다함께 공경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백중지절을 맞이하여 인연있는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도 기원합니다.

법회소식 NEWS

- 백중은 부처님 오신날 만큼이나 중요한 불교행사입니다. 2003년 백중지절(우란분절)을 맞이하여 불국사(Buddhanara Temple) 신도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호가 충만하여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백중은 부처님의 제자중 신통제일인 목련존자께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천도하신 날입니다. 백중을 맞이하여 불국사에서 업장소멸 7일 기도와 선망 부모 및 인연있는 유주무주 모든 영가님들의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특히 지난 일년간 알게 모르게 살생해서 원결을 짓게된 동물이나 곤충, 벌레 등 모든 영가님들도 극락왕생할수 있도록 천도 기도도 함께 봉행합니다. 우란분절에 보면 일년에 한번 백중날 지옥문이 열린다 합니다. 행복의 씨앗인 자신의 공덕을 쌓는 백중날에 갖는 지장기도 및 업장소멸 기도에 많이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시고 또한 선근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7일간 기도 동참 및 천도제 기도는 \$50 불 입니다만 경제 사정상 어려우신분은 총무님과 상의 하셔서 절충해 주십시오.
기도입제: 8월 10일 (음력 7월 13일) 11시 (사시기도 및 관음시식)
기도회향: 8월 17일 (음력 7월 20일) 11시 (사시기도 및 관음시식)
- 주지스님이주지 스님이 8월 13일날 유대인 회관 Central Reform Congregation 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선과 영불”이라는 제목으로 법문을 하십니다. 모두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세인트루이스 지역 및 근방에 기거하는 각 단체의 지도자들이 20여명이 발표를 합니다. 이번 평화를 위한 학술회의의 큰 제목은 “Speak Out Your Piece of the Peace”입니다. 시간은 저녁 7시 15분에 시작해서 9시 15분에 끝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동참하셔도 됩니다.
- 아드님이신 덕산 김기덕 거사님 뒷바라지를 위해 몇 달간 미국에 머물고 계셨던 반야심 신 윤정 보살님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그동안 이곳 세인트루이스에 계시는 동안 매주 정기 법회 참석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사찰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특히도 주지 스님이 안계셨던 2주 반동안 일각 김영신 거사님을 도와서 사찰을 관리하심은 물론이고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봉사해 주셨습니다. 불국사에서 보살님께서 보여주신 불자로서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신심과 수행은 많은 신도님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생각하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하십시오.
- 8월 첫째주 일요일 즉 8월 3일은 법회후 점심공양을 마치는 대로 Ackert's Farm 에서 복숭아를 따기로 계획했었으나 신도님들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복숭아 따러 가는 일정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9월이나 10월경에 근처 공원에서 야외법회도 하고 Ackert's Farm 에서 사과도 딸 계획입니다. 가을 야외법회에는 날씨도 선선하니 야외법회하기에는 좋은 기후입니다. 불자님들간의 관계도 돈독히 하시고 친목도 다질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8월 마지막제주 즉, 8월달 5번째주인 8월 31 일에는 법회가 없습니다. 각자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9월 첫째주에 뵙겠습니다.
- 보시: 초 70개 : 여여심 이 인영 보살님 과 한국에 계신 김 영주 보살님
금강경 사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사경, 반야심경 사경: 불국사 후원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주의 공덕으로 소원성취 하시고 업장 소멸 하시기를 축원을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